

농업시설물 화재예방 관리기술

□ 화재발생 현황

○ 최근 3년('13~'15) 평균 191건 화재 발생, 건당 17백만원 피해

구분		발생(건)	재산피해(백만원)	
			전체	건당
2013	농업용온실	149	964	6
	버섯재배사	32	789	25
2014	농업용온실	164	820	5
	버섯재배사	37	2,389	65
2015	농업용온실	157	1,483	9
	버섯재배사	34	3,256	96
2016 ^(잠정)	농업용온실	190	1,851	10
	버섯재배사	38	698	18

* 출처: 국민안전처(국가화재정보시스템)

○ 온실 내 전기시설 증가에 따른 전기사용량 급증, 난방용시설 등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사고 발생 다수

□ 화재예방 요령

- 온풍난방기 연통과 비닐 접합 부분 열 차단 피복재 사용
- 각종 전선은 용량에 맞는 규격 전선 사용, 노후전선 교체
- 정격용량의 퓨즈 또는 배선용 차단기 사용
- 유류난방기 배관 누유 점검, 난방기 주위 인화성물질 이격
- 전기 트레킹 방지를 위한 배전반 내부 먼지 '에어컨' 또는 '배전반 전용세정액' 사용 청소

* 전기트레킹: 배전반(차단기), 콘센트 등에 먼지 등이 쌓여 누전·발화하는 현상



○ 화기주변 소화기 배치 및 사용요령 숙지

□ 소화기 사용법 및 관리요령

○ 소화기 사용법

-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긴다.
-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는다.
-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가 불을 향하게 한다.
-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린다.



○ 소화기 관리 요령

- 눈에 잘 띄고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
- 습기가 적고 건조하여 서늘한 곳에 설치
- 유사시에 대비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파손, 부식 여부 확인
- 한번 사용한 소화기는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업체에서 약제 재충약
- 축압식 소화기 계기판 바늘 위치(녹색 정상, 노랑·빨간선을 표시하면 119 전화 문의)

○ 소화기 비치요령

-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미터 이내에 하나씩 비치
- 바닥에 받침대 위에 올려놓거나 벽에 걸어놓아 눈에 잘 띄도록 비치
- 불이 나면 대피할 것을 고려, 출입구 가까운 곳에 비치
- 물이 닿는 곳, 섭씨 30도 이상 더운 곳 비치 금지



겨울철 농업시설물 관리기술

- 겨울철 농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하여 줄 것을 농가별 안내
 - 복숭아·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



< 백색 부직포 싸매기 >



< 볏짚 싸매기 >



< 보온재료 싸매기 >

-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
 -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보강지주(보조 지지대)를 2~6m간격으로 설치



<보강지주 설치 전경>



<도리와 보강지주의 연결>



<바닥 지지판>

- 하우스 밴드(끈)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
-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

- 가온(加溫)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
-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



<비닐씌움>



<천창을 열어둠>



<차광망 위에 비닐씌움>

-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



< 방조망 걷음 >



< 눈 털음 >



< 차광망 걷어둠) >

- 위와 같은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관리하는 농작물, 농업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,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여 조기 복구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한편,

-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홍보바랍니다.

※ 붙임 : 농업재해보험 폭설피해 보험금 지급 사례

1 하우스 붕괴사고(1)

- ◇ 충남 태안군에서 하우스 농사를 하는 김○○는 174천원의 보험료 (농가부담)을 내고 원예시설보험을 가입
- ◇ '14.12.5일 오전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하우스 전체적으로 내려 앉는 피해발생
- ◇ 총 15,338천원의 보험금 수령(농가부담 보험료의 88.1배 수준)



2 하우스 붕괴사고(2)

- ◇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딸기하우스 농사를 하는 이○○는 355천원의 보험료(농가부담)을 내고 원예시설보험을 가입
- ◇ '15.151.26일 부터 내린 폭설로 인하여 피복재 손상, 파이프 휘어짐 등 하우스가 전체적으로 주저앉는 피해 발생
- ◇ 총 76,979천원의 보험금 수령(농가부담 보험료의 216.8배 수준)



3 인삼 폭설피해

- ◇ 경기 이천시에서 인삼(5년근, 8,280㎡)를 재배하는 박○○씨는 890천원 (농가부담)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
- ◇ '15.12.03일 갑작스런 폭설로 가입면적의 32%수준인 2,630㎡의 해가림시설 파손
- ◇ 해가림시설 복구비 5,039천원의 보험금 수령(농가부담 보험료의 3.4 배 수준)

